第14次 WEC 總會 參加 計劃

캐나다 몬트리올에 韓國代表團 參加

오는 9월 17일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WEC 제14차 총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가 事務局을 중심으로 진행중에 있다.

WEC 총회는 3년마다 세계각국 에너지 관련 專門家들이 參與하여 論文發表 및 討論을 하고 WEC 각종 技術研究委員會들의 그간 연구결과를 報告하는 기술 프로그램(Technical Programme)과 각종 産業視察, 展示會, 文化行事 등이 병행하여 개최된다.

1986년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된 제13차 총회에는 WEC 會員國으로부터 40여명의 장관, 국제기구, 에너지 관련 정부대표, 공공기관, 국제규모의 주요 회사 책임자, 학계인사들을 포함 2500명의 代表들이 참가하였다. 한국에서는 李鳳瑞 動力資源部 長官(당시 차관)등 18명의 에너지계 대표가 참가하였으며, 韓電, 韓國重工業 등 5개 관련 회원사에서는 전시회에 參與하여 많은 成果를 거둔 바 있다.

캐나다는 WEC 제14차 總會 開催國으로서 木材, 鑛物, 化石燃料 및 水資源 등 資源의 종류나 규모에 있어서 세계 최대 富國의 하나이며, 이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 세계각국으로부터 3000여명의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각종 논문발표와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例年과 같이 열리는 國際執行理事會(IEC) 및 총회기간중에 개최되는 에너지 技術展示會, 회의 終了後의 産業視察 등 다채로운 내용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에너지 행사가 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번 總會의 概要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期間 : 1989. 9. 17~9. 22.

2. 場所 : 캐나다 몬트리올 'Palais des Congress'

3. 日程 :

1) 常任 및 技術研究委員會

① 9. 12(화) : Renewable Energy Resources :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1990－2020

② 9. 13(수) : 行政委員會(오전)
Committee for Energy Issues of Developing Countries(오후)

③ 9. 14(목) : Energy Terminology Committee
節約·研究委員會(오전)
企劃委員會(오후)

2) 國際執行理事會

9. 15(금), 16(토) 및 22일(금)에 개최되며 WEC 諸般 事業活動 및 運營事項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로 각회원국의 공식대표는 4명이고 observer로도 참석할 수 있다.

3) 總會 및 展示會 개회식 : 9. 17(일)

4) 技術프로그램 : 9. 18(월)－21(목)

① 4개의 Division(에너지와 社會, 環境, 經濟, 技術)으로 구성된 技術分科討論會(Technical session)에 앞서 18일 오전 첫행사로 Division별로 代表 1名씩 이 基調演說을 하게되며 각 Division이 다룰 중점사항과 기술분과토론회의 주요사항이 소개된다. IEC 名譽副議長인 鄭根謨 博士는 Division Ⅱ (Energy and the Public)의 座長을 맡게된다.

② 技術分科討論會(Technical sessions)

9. 18일에서 20일까지 열리는 본 토론회는 참가자들에게 실무분야에서 요구되는 有用한 資料 및 情報를 제공해주는 것이 목적이며, 嚴選된 180編의 論文이 發表될 計劃이다.

③ 綜合檢討會議(Review session)

9. 21일에 열리는 종합검토회의는 기술분과토론회의 내용정리를 통해 각 Division에서 나타난 論點들을 종합·수렴하고 이를 분석키 위한 것이며 이 session을 통해 참가자들은 技術分科討論會에서 다루어진 問題들을 集約 評價할 수 있는 機會를 가지게 된다.

④ 戰略的인 에너지問題(Strategic Energy Is-

sues)

9. 19일과 20일에 열리는 이회의는 特別企劃프로그램으로서 國際的으로 著名한 人士들이 長期적인 觀點에서 汎世界的인 에너지問題에 대해 講演하게 되고 이것은 政策決定者들의 에너지分野 長期計劃樹立에 좋은 資料가 될 것이다.

⑤ 討論會議(Round table)

9. 18일에서 21일 사이에 열리는 본 회의에서는 세계가 當面한 주요 에너지問題들에 대해 政策決定者 및 技術專門家들이 함께 討論하게 된다.

⑥ 研究實務班 會議(Working Groups)

9. 18일에서 21일까지 열리는 본 회의에서는 1986년 칸느 총회 이후 WEC 技術研究委員會가 遂行한 연구내용을 검토하고 研究結果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5) 産業施設 訪問(Technical visits)

9. 18일에서 21일까지 실시되며 訪問地는 Hydro-Quebec System Control Centre 등 9개 施設이다.

6) 에너지 관련 展示會, 社會·文化 行事 및 觀光(9. 18-21)

7) 閉會式(9. 22)

8) 産業視察(9. 22-28)

會議 終了後 West Coast Splendor등 15개 코스와 미니코스 2개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總會에 약 20명이 참가하게 되고 既提出한 論文중에서 서울대 金浩卓 教授 등의 5編의 論文이 採擇되어 技術會議時 發表하게 된다.

이번 總會에서는 'Energy for Tomorrow'라는 主題하에 에너지問題의 成功的 解決을 위해서는 어떤 要件들이 필요하고 미래 世代들에게 健實한 에너지遺産을 물려주며 2000년대의 안정된 세계로 進入하기 위해 財源과 財政的 戰略, 技術 등을 어떻게 活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汎世界的, 地域的, 國家的인 次元에서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내일의 에너지政策 樹立을 위해 社會, 環境, 經濟 및 기술적인 諸般 問題들을 훌륭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韓國側 提出 論文

	Division	論 文 題 目	作成者 / 機關
1	Enery & Society	-	-
2	Energy & the Environment	• Impact of Environmental Assesments to Thermal Power Plant Operation : Influences on Policy Development for Power Plant Fuel Supply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김은아 / 홍욱희 책임연구원 한전기술연구원
3	Energy & the Economy	• Korea's Energy Experience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 An Economic Analysis on Household Energy Consumption Behavior in Rapidly Developing Country : The Case of Korea • Cogeneration in Korea : Potential and Economic Decision	김호탁교수 서울대학교 이상곤 교수 인하대학교 권영한 실장 / 한영선 연구원 한국전기연구소
4	Energy & Technology	• Application and Field Experience with Photovoltaic Systems for Rural Electrification	송진수 실장 동력자원연구소

WEC總會발표 技術研究內容 討議

WEC-C & S 委員會 南廷一委員 參席

금년 4월부터 개설된 "암스텔담" 노선의 KAL 913을 타고 쥬리히에 도착한 것은 4월 23일 오전이었다. 몇번 와본 적이 있으나 그때마다 바쁘게 스쳐갔기 때문에 처음온 것이나 다름없이 지리적 친숙감은 없으나 다른 유럽의 큰 都市들과 별차이가 없었으며, 일요일 오전중의 시내 거리는 한산하기만 하였다.

작년 올림픽을 전후하여 얼마동안 실행하였던 蘇聯영공 통과에 의한 비행시간 절약의 혜택을 은근히 아쉬워하면서 "Limmat" 강변의 한 호텔에 들어 2박 3일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당일 저녁에는 參席者 및 동반자들은 Electrowatt사의 수석부사장이며, 필자와 같은 C&S 위원회의 委員이기도 한 Drafft씨가 초청하는 만찬에 초대되었다. 쥬리히 시내를 관통하는 Limmat 강변 시내 중심가인 Limmatquai에 위치한 고풍이 창연한 Guildhouse였던 "Saffran"이란 이름의 레스토랑이었으며 전통적인 스위스 음식과 각종 포도주를 감상할 수 있었다.

다음날에는 아침 9시부터 Electrowatt사 會議室에서 C&S가 주관하는 13개 研究計劃에 대한 자세한 진행상황 즉, 14차 WEC 총회(Montreal/Canada, 89. 9)에 대비한 최종 점검, 확인을 매과제 마다 시행하였다. 특히 "2020년까지의 세계에너지 수급전망"에 대하여서는 6년만에 새롭게 실시하여 總會에 發表하는 것이라서 여러가지 예측에 적용된 가정과 방법, 실적 및 예측수치에 대한 장시간의 討論을 가졌다.

또 한가지 중요 討議 事項은 '88 Stockholm IEC에서 결정된 C&S委員會내의 Task Force Group을 설치 운영하는 구상에 대한 것이었다. 원래 C&S委員會의 研究活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Top-Down식 政策研究를 종전의 Bottom-Up식 研究 計劃과 조화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Central Coordinator인 Lindstrom씨의 '89년(Montreal), '92년(Madrid)總會를 대비한 전반적 구상 설명에 이어 4개 Group의 Coordinator들에 의한 '89년 총회시 "Working Group" Session에서 다룰 報告內容에 대한 개별 설명이 있었다. 이 Session의 의장은 Baker씨(영국 CEGB 중역)가 맡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C&S 會議에서는 그간 정규위원으로 참여하여 왔던 불란서의 Frisch씨(EdF 간부기술자)가 일반위원으로 물러나고 대신 EdF 사의 총재인 Bergougnoux 씨가 정규위원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점차 WEC 活動에서 불란서의 역할이 약화(?) 되어가는 것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인것 같으며 더구나 C&S 委員會의 전신인 Conservation 委員會가 불란서의 EdF 총재를 지냈고 현재 WEC 총재인 Boiteaux씨에 의하여 오랫동안 주관되어 왔다는 점에서 짐작되는 시도인듯 하다.

한편, 스웨덴의 Ekberg씨가 C&S 委員會를 맡고서는 북구 5개국의 적극적인 活性化 구상으로 주도권을 잡아 보려는 눈치도 불란서 측으로는 이미 간파하고 있을 것이다.

세계적 에너지 需給 狀況에 따라 용어의 개념이 달라질수도 있지만 공교롭게도 C&S 위원회도 "Studies Committee"로 개칭하여 아예 Conservation이란 용러를 없애려는 것도 아이러닉 하다고 보겠다.

WEC 會議는 원래 정책적이고 개괄적인 에너지 問題를 조사, 연구하여 각종회의나 간행물을 통하여 회원국에 보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會議 참가자 개인이나 會員國의 정책 입안자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 문제로 되어 WEC 중앙 事務局에서도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다각도로 구상중에 있다.

그러나 종합에너지 협의기구로써의 고유 기능을

고양시키고 에너지 政策 및 전문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책임있는 인사들간의 情報交換과 협력 유대를 강화하여 실효를 거두도록 우리 國內委員會에서도 會員社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전개하여야 겠다.

Technical Visit도 없어 다음날 Zurich를 떠나 다른 업무관계로 Boston으로 향하면서 마침 불구의 몸(왼발 절단으로 목발이용)으로 택시 기사로써 꾸밈없고 성실한 자세로 차를 오르내리면서 짐을 챙겨주던 60세 가까운 노인기사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C&S 위원회 소관 연구과제('86~'90)

- District Heating & Combined Heat and Power Systems
- Energy Consumption in Industrial Processes
- Energy - related Atmospheric Pollution
- Energy and the Public
- Environmental Effects Arising from Electricity Supply & Utilisation and the Resulting Costs to the Utility
- Fuel Cells
- Low Grade Coal
- New Energy Perspectives 2000－2020
- Oil Substitution Monitoring
- Oxygenated Transport Liquid Fuels : the Total System
- Solar Power
- Technology of Biogas Production & Application in Rural Areas
- The Growing Role of Electricity in the Energy Spectrum

(南廷一記)

WEC JOURNAL 原稿募集

世界에너지會議(WEC)는 WEC 자체소식 및 에너지 關聯 情報와 專門知識의 相互交流를 目的으로 WEC 會員 및 기타 기관, 정부, 대학, 에너지 관련 人士들을 대상으로하여 Journal을 發行 配布하고 있다.

WEC는 이 Journal 창간호(1987. 12), 제2호(1988. 12)를 發刊하였는데 世界 各國의 讀者들로부터 呼應이 좋을 뿐만아니라 國際的인 에너지 專門雜誌로 發展시키고자 제3호(1989. 7)부터는 年 2回 發刊할 계획이다.

WEC 본부는 각 國內委員會로부터 Journal에 게재할 原稿를 모집하고 있으며, WEC 韓國國內委員會/韓國에너지協議會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會員社 및 에너지 關聯 機關, 個人들로부터 원고를 모집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분야를 紹介할 計劃이다.

이에 따라 本 協議會에서는 WEC本部에서 發刊되고 있는 Journal 原稿 모집에 會員社 및 에너지 관련 機關, 團體에서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라며, 原稿 모집에 따른 요강은 다음과 같다.

－ 모집요강 －

가. 원고내용

○ 에너지 관련 諸般 分野(技術, 財政, 法規, 經濟, 環境 및 社會的인 側面等 : 미래, 과거, 또는 현재)

○ 特定國家, 特定地域 또는 汎世界的인 內容

나. 使用語 : 영어 또는 불어
다. 분량 : 4000단어 이내
라. 제출기한 : 수시접수
마. 기타문의사항 : 한국에너지협의회
(787－8508)